

미국 동부지역 디지털도서관 연수보고

김 성 혁

(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한국도서관협회의 국제협력위원회는 '97년도 주요사업의 하나로, 최근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 동부지역의 디지털도서관 개발 및 운용현황을 회원들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디지털도서관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필자는 그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본 연수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수단을 인솔하고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4일 까지 미국현지를 다녀왔다. 연수의 준비과정, 현지에서의 방문 일정, 연수 과정, 주제선정 및 연수 성과 등의 평가를 통해 보다 나은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국제협력위원회의 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수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번 연수여행의 대강을 여기에 보고한다. 우선 처음 실시된 '미국 동부지역 디지털도서관 연수'의 전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주제선정에 있어 국제협력위원회는 두 가지 주제를 놓고 여러 번의 회의를 하였다. 하나는 공공도서관이고, 다른 하나는 디지털도서관이었다. 각각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러 상황을 검토한 결과, 두 프로그램을 통합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수는 어떤 측면에서는 공공도서관과 디지털도서관이라는 두 주제가 통합된 연수이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금년이 처음이라는 점과 여러 유형의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에게 미래의 도서관 방향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야한다는 점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그 결과, 디지털도서관은 미국의 국회도서관,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그리고 러커스 대학도서관

(Rutgers Univ. Library)을 공공도서관은 뉴저지(New Jersey)에 있는 이스트브루스윅공공도서관(East Brunswick Public Library), 뉴욕시에 있는 뉴욕시립도서관(New York Public Library) 등을 방문일정에 포함시켰다.

본 연수프로그램이 사서 및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는 협회의 주요 관심사이었다. 협회로서는 본 프로그램이 단순히 관광차원이 아닌 공부하는 연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요시 하였기 때문에 사서들의 호응정도를 보다 프로그램의 계속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신청을 접수한 결과 신청자가 너무 많아 선착순으로 연수자를 선발하는 결과를 낳았고, 새로운 차원의 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결국, 신청자중에서 17명만을 연수에 참여시키게 되었다. 가급적 많은 수의 연수자를 참여시키고 싶었지만 방문기관의 사정, 항공기 사정 등으로 인해 인원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음은 매우 아쉬운 일였고, 신청자 중에서 연수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다.

디지털도서관은 최신의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지식이 없이는 연수 자체가 무의미할 것이라는 판단아래 적어도 2회 이상의 강의와 설명을 할 예정이었지만 연수 일정상 1회 밖에 실시하지 못하였다. 이것도 방문기관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와 개발중인 디지털도서관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다. 결국은 이러한 결과가 연수과정에서 일부 나타났었다. 따라서, 다음 번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충분히 시간적인 여

유를 가지고 연수참가자들에게 적어도 2-3회 정도의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현지에서의 방문 및 연수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었지만, 국회도서관의 경우는 무리한 일정으로 인해 통역 없이 연수가 진행되어 연수자들에게 불편함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연수의 핵심은 국회도서관의 국가디지털도서관 구축에 관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전체적인 일정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까지 강의와 견학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통역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국립과학재단, 러커스 대학, 이스트브루스워킹공공도서관, 뉴욕공공도서관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도서관 등은 연수 중간 중간에 통역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었다. 연수자들이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등에 근무하는 사서 및 문헌정보학 교수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서로의 관심사가 달라 질문의 유형과 내용이 매우 다양하였다는 것이 본 연수의 특징이었다.

전반적으로 '미국 동부지역 디지털도서관 연수' 프로그램의 가시적인 성과는 미래의 도서관 방향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도서관의 유형에 관계없이 디지털문헌이나 전자문헌 중심의 도서관이 확대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하나의 성과는 단순히 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 및 관련시스템을 견학하는 차원이 아닌 현지 사서들과의 대화 및 의견 교환의 시간을 통해 사서들간의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번 연수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연구과정 중간 중간에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들을 나름대로 제시한 것도 성과중의 하나였다.

본 연수를 무사히 마친 것은 연수 참가자들의 덕분이었다. 이는 한국을 출발하면서부터, 미국에 체재하는 동안은 물론 김포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여러

가지 불편과 모자람을 잘 참아준 결과일 것이다. 지면을 통해 연수 참가자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연수과정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관종별 연수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서로의 관심사항이 다른 경우, 연수 진행에 차질을 주게 된다. 둘째, 연수기관과의 사전연락이 철저하여야 한다. 사전 연락없이 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커다란 결례이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세세한 부분까지도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셋째, 연수기관과 주제가 결정되면, 출발하기 전에 적어도 2-3번의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연수자들이 주제에 대한 이해 없이 연수를 받는 것은 참가에 의의를 들 뿐이지 연수의 성과는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국제협력위원회나 전문가에 의한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연수기관의 협조에 대한 답례가 너무 소홀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20여명을 연수시키기 위해 그들이 보여준 열의, 정성 및 시간 등을 생각할 때, 이에 대한 우리의 사례는 너무 소홀하였다. 다섯째, 연수경비 이외의 비용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지가이드 비용, 선택관광 등에 대한 사전정보를 연수자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여섯째, 우리의 현황에 대한 소개 내지는 논문을 발표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본 연수에서도 이에 대비한 준비를 하였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기회가 국내 사서들의 국제화 감각을 꾸준히 높여갈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그램을 마련한 한국도서관협회 사무국 및 국제협력위원회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한 연수 참가자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관련기사 및 참가자명단 : 68쪽〉